

# “더 민주적이고 창의적인 시민운동 펼칠 것”

### 서해현 제46대 광주YMCA 이사장 취임 청소년 시민성 교육 등 100년 비전 밝혀

광주YMCA는 최근 광주YMCA 무진관에서 서해현 제46대 이사장 취임식을 개최했다.

행사는 1부 개회 예배와 2부 이사장 취임식 등으로 진행됐으며, 광주YMCA의 역사와 정체성을 되새기고 향후 방향을 공유하는 뜻깊은 자리로 이어졌다.

광주YMCA는 앞으로 시민 참여 확대와 지역 민주주의 회복, 사회적 약자와의 연대를 중심으로 시민단체로서의 공공적 역할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청소년 시민성 교육 강화, 지역사회 공공성 확대, 기후위기 대응과 평화운동 시민단체로서의 역할 강화 등을 주요 방향으로 제시하며, 광주YMCA의 새로운 100년을 향한 비전을 밝혔다.

서해현 이사장은 취임사를 통해 “광주YMCA는 106년의 역사 속에서 시민과 함께 성장해 온 소중한 공동체다”며 “청소년에게 꿈을, 지역사회에 희망을, 지구촌에 평화를 전하는 YMCA의 사명을 바탕으로 더욱 민주적이고 창의적인 시민운동을 펼쳐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서해현 이사장은 취임사를 통해 “광주YMCA는 106년의 역사 속에서 시민과 함께 성장해 온 소중한 공동체다”며 “청소년에게 꿈을, 지역사회에 희망을, 지구촌에 평화를 전하는 YMCA의 사명을 바탕으로 더욱 민주적이고 창의적인 시민운동을 펼쳐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송태영 기자 sty1235@gwangnam.co.kr



광주YMCA는 최근 광주YMCA 무진관에서 서해현 신임 이사장 취임식을 개최했다.

사진제공=광주YMCA

## 전남개발공사, AI 스마트도시 모델 벤치마킹

전남개발공사가 전남광주 통합특별시 출범을 앞두고 인공지능(AI) 기반 스마트도시 모델 구체화에 나섰다. 단순한 구상 수준을 넘어 국가 시범도시 현장을 직접 확인하며 적용 가능성 점검에 들어간 것이다.

전남개발공사(사장 장충모)는 19일부터 20일까지 이틀간 부산 에코델타시티와 세종 스마트시티(5-1생활권) 국가 시범도시를 방문해 스마트시티 기술과 운영 사례를 집중적으로 살폈다.

이번 일정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수자원공사(K-water), 부산도시공사, LG CNS 등 관련 기관과 기업 전문가들이 함께 참여했다.

현장 중심 점검과 함께 기술 적용 방식과 운영 구조에 대한 의견 교환이 병행됐다.

부산 에코델타시티에서는 스마트빌리지 실증단지 중점으로 로봇서비스, 스마트 헬스케어, 제로에너지 주택 등 생활 밀착형 기술 적용 사례를 확인했다. 실제 주거 환경에서 기술이 어떻게 구현되는지



전남개발공사는 지난 19일부터 20일까지 이틀간 부산 에코델타시티와 세종 스마트시티(5-1생활권) 국가 시범도시를 방문해 스마트시티 기술과 운영 사례를 벤치마킹 했다.

에 초점이 맞춰졌다. 세종 스마트시티에서는 자율주행 빅데이터 관제센터를 방문해 도시 전반을 데이터 기반으로 운영하는 시스템을 점검했다. 도시 인프라와 교통, 서비스가 통합적으로 연결되는 운영 구조가 핵심으로 제시됐다.

두 시범도시의 자율주행 교통체계와 도시 데이터 플랫폼, AI 기반 도시관리 시스템을 적용한 국내 대표 스마트시티 모델로 평가된다.

장충모 사장은 “현장에서 확인한 기술과 운영 사례를 토대로 통합특별시에 적용 가능한 모델을 발굴하겠다”며 “향후 도시개발 사업 전반에 단계적으로 반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 부산·세종 국가시범도시 방문 통합특별시 대응 전략 본격화



나주시는 최근 '남평초등학교 테마공원'을 조성하고 개원식을 개최했다. 사진제공=나주시

## 폐교된 나주 남평북초 부지 '테마공원' 탈바꿈 시, 사업비 24억 투입...카페·주민센터 등 조성

나주시가 폐교된 남평북초등학교를 역사와 문화가 어우러진 테마공원으로 새롭게 조성하며 지역의 새로운 관광문화 거점으로 탈바꿈시켰다.

22일 나주시에 따르면 최근 남평을 광촌리 507번지 일원 옛 남평북초등학교 부지를 리모델링해 카페와 전시관, 주민센터 등을 갖춘 '남평북초등학교 테마공원'을 조성하고 개원식을 개최했다.

이번 사업은 폐교된 학교가 지닌 역사와 교육적 가치를 보존하면서 지역 주민과 관광객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문화 휴식 공간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됐다.

남평북초는 1911년 남평학교조합 설립 남평심상고등소학교로 개교해 지역 교육의 중심 역할을 해왔다.

1921년 남평 동사리 관덕정 부지로 이전한 뒤 남평공립심상고등소학교와 남평북국민학교로 명칭을 바꾸며 호남 지역의 대표적인 명문 학교로 자리 잡았다.

2006년까지 총 2529명의 졸업생을 배출하며 지역 인재 양성의 산실 역할을 했으나 학령인구 감소 등의 영향으로 2007년 폐교됐고, 이번 리모델링을 통해 기존 학교 건물은 새로운 문화 공간으로 재탄생했다.

옛 교사였던 제1동(583㎡)은 방문객들이 휴식을 즐길 수 있는 카페 공간으로 조성됐으며, 급식동이었던 제2동(165㎡)은 학교의 역사와 지역 이야기를 담은 전시 공간으로 활용된다. 또 유치원동(57㎡)은 운영 사무공간으로 참고동(50㎡)은 지역 주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주민센터로 조성됐다.

시 관계자는 “격동의 세월 속에서도 호남의 명문으로 자리했던 남평북초등학교 교정에는 수많은 추억과 이야기가 담겨 있다”며 “교정의 나무 한 그루와 흙 한 줌에 담긴 기억을 보존해 시민과 관광객이 함께 찾는 문화공간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나주·조현정 기자 pose007@gwangnam.co.kr

## ACC 창제작 '잊어버린 전쟁' 콘텐츠 축제로 수상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 전당장 김상욱)은 ACC가 기획·제작한 '잊어버린 전쟁'이 지난 18일(현지시간) 미국 '2026 사우스 바이 사우스웨스트'(이하 SXSW) XR 엑스퍼리언스 부문에서 심사위원 특별상을 수상했다고 22일 밝혔다.

매년 3월 미국 텍사스주 오스틴에서 열리는 SXSW는 영화·음악·기술이 융합된 세계 최대 규모의 창의 산업 축제다. 특히 XR 엑스퍼리언스 경쟁 부문은 실감형 콘텐츠의 미래를 제시하는 혁신적인 작품들을 엄선하는 무대로, 전 세계 창작자들에게 가장 영향력 있는 글로벌 플랫폼으로 꼽힌다.

올해 ACC의 '잊어버린 전쟁'은 15개의 경쟁한 후보작 중 한국 및 아시아 작품으로는 유일하게 경쟁 부문에 이름을 올렸으며, 최종 심사위원 특별상 수상까지 거머쥐며 ACC의 융복합 예술 창작역량이 국제적 수준에 도달했음을 시사했다.

특히 올해 XR 엑스퍼리언스 본상 수상작은 대상과 심사위원 특별상 등 2개 작품 뿐이다.

이번 작품은 ACC 상호작용예술팀의 연구개발 성과물로, 미디어 아티스트 권하윤과 협업해 제작됐다. 6·25전쟁의 전환점이 된 '지평리 전투' 참전 용사들의 증언을 바탕으로, 관객이 가상 공간 속 인물의 기억과 조우하는 위치기반형 상호작용 가상현실(VR) 형식을 취하고 있다.

스팀이 글로벌 표준과 어게를 나란히 하고 있음을 의미한다는 설명이다.

김상욱 전당장은 “ACC의 창의적인 융복합 연구개발 결과가 세계 최고 무대에서 의미 있는 성취를 거두게 되어 기쁘다”면서 “앞으로도 예술가들의 창의적 영감이 첨단 기술과 만나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제작 지원 모델을 강화해 세계적인 문화예술 거점으로 자리매김하겠다”고 말했다.

정재경 기자 view2018@gwangnam.co.kr



## 강진·고흥 보건소, 고향사랑 동행 100명 참여...500만원씩 상호기부

강진군보건소와 고흥군보건소는 최근 강진보건소에서 고향사랑기부제의 활성화와 지자체간 상생 발전을 위한 고향사랑기부금 상호 기부 기탁식을 열었다.

이번 상호 기부는 지역 주민의 공공 의료·보건을 책임지는 두 보건소 간의 유대를 강화하고, 고향사랑기부금을 지역 주민 건강 증진 사업에 적극 활용하기 위해 두 지자체 직원 100명이 참여해 각 지자체에 500만원씩 기부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본인의 주소지를 제외한 지자체에 연간 500만원까지 기부할 수 있는 제도로, 기부자에게는 세액공제와 기부금의 30% 이내에서 지역 특산물 등 답례품이 제공된다.

양 기관은 이번 기탁식을 계기로 고향사랑기부금을 활용한 공공 의료 및 보건사업의 우수 사례를 공유하고, 지역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사업 확대를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강진·이진욱 기자 sa4332252@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 기획·제작한 '잊어버린 전쟁'이 지난 18일(현지시간) 미국 '2026 사우스 바이 사우스웨스트' XR 엑스퍼리언스 부문에서 심사위원 특별상을 수상했다.

## 교통안전공단 광주전남, 공무원 역량강화 컨설팅 익산국토관리청 합동...지역 27개 시·군·구 대상

한국교통안전공단 광주전남본부(본부장 김성호)는 최근 광주·전남 27개 시·군·구 교통안전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컨설팅을 진행했다고 22일 밝혔다.



당 공무원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익산국토관리청과 합동으로 이뤄진 이번 컨설팅은 지자체 교통안전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업무 전문성을 강화하고자 마련됐다.

주요 교육 내용은 △교통사고 원인조사·시스템(TMACS) 이용방법 △교통수단 안전점검 시 법령 위반 사례의 유형·단체량 점검시 DTG를 활용한 불법 자동차 단속 요령 등이다.

또 토론을 통해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지자체 교통안전담당 공무원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행식 한국교통안전공단 광주전남본부장은 “교통안전담당 공무원들의 역량이 한층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지자체와 협력을 강화해 안전한 모빌리티 환경을 조성하고 국민의 일상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임영민 기자 looks@gwangnam.co.kr